‘5·18 헌법’ 모두가 약속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새 정부 지역공약 이젠 실천 나서야

〈5〉 5·18헌법전문 로드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이 대통령 “5·18정신 헌법 수록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정신” 강조
구체적인 수록 방안 내놓아야
현대미술관 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3대 국립문화시설 광주로 이전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한 광주일보 5·18 45주년 특별판.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온다’ 소설을 인용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임을 강조해 왔다.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 지켜온 민주주의가 87헌법에 새겨졌고, 계엄세력의 2024년 헌정 중단의 시도에서 민주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냈다는 점에서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한 만큼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광주 지역민의 한 목소리다.

당장 내란 종식을 완수하면서 전 정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되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다만,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를 찾은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지만, 지킨 이들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정권에서조차 이를 현실화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인권 도시이자 문학·예술로 뛰어난 광주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광주지역 공약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립 망월동 5·18묘지의 국가공원 조성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5·18사적지 중 국가 사적지는 한 곳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복원도 시급하다.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돼 사업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광주의 강점인 문화·예술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국책사업인 아시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방균형 발전과 미래 문화 콘텐츠사업을 기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3.0 조성사업 실행 거점으로 3대 국립문화시설(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가 높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수도권(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중부권(청주관·대전관) 영남권(진주관·대구 국립근대미술관)에 분관을 두고 있지만,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광주시도 시가 매입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 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비엔날레 30주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일반 회화 소장품과 미디어 아트 등 현대 미술작품을 복합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도시인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는 5·18 이전 일제강점기 항일정신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의 최적지가 광주인 것이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당시 시민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 장소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마지막 퍼즐은 국회도서관 광주관이다.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에 1개(서울 본관), 영남권 국회 부산도서관(분관), 세종시 이전 계획(국회도서관 포함)이 있지만, 호남권에는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기록물 아카이빙과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의 집적을 위한 국회광주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에 비해 문화인프라가 절대부족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통령과 추기경 반가운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인사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교황 2027년 방한 길에 북한도 방문하시길”

유흥식 추기경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할 가능성을 두고 대화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그때 교황이 한국에 오실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다.

또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사망사고·인재확보·의정갈등 챙겨달라”

이 대통령, 김 총리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가 의정갈등에 대해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